

WEEKLY 인·물·지·식·가·이·드·저·널 PEOPLE



법관에서 변호사로 '새로운 도약'
의뢰인의 정서적 안정과
권리 구제에 힘쓰다

김윤정 법률사무소 화안 대표변호사



법관에서 변호사로 '새로운 도약' 의뢰인의 정서적 안정과 권리 구제에 힘쓰다

김윤정 법률사무소 화안 대표변호사

아주 친한 사이라도 별것 아닌 것으로 오해하고, 해결이 안 돼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들 간에 벌어지는 민사 소송, 이혼, 재산분할, 양육 문제 등도 법정에서는 비밀비재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건이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서운함이 더 커서일까?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족 간의 분쟁은 타인 간의 분쟁보다 감정의 골이 깊어 훨씬 치열하고 양보가 잘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가장 믿었던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깨진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화안의 김윤정 대표변호사는 다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균형 잡힌 사고, 본질을 꿰뚫는 혜안으로 상처 입은 의뢰인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변호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김윤정 대표변호사, 그가 걸어온 법조인의 길을 <위클리피플>이 동행해봤다.

취재·글 김유위 기자, 이나현 기자, 선지연 기자

온화한 미소를 되찾아주는 '법률사무소 화안'

김 변호사는 최근 18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법률사무소 화안을 개소해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첫 발을 내디뎠다. 서초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화안은 주로 이혼, 재산분할, 성년 후견 등 가사 사건과 기업 인수합병, 기업 구조조정 등 기업법무를 맡으며 의뢰인들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전혀 다른 두 분야를 다룰 수 있는 건 법관으로 근무하며 가사 분야의 경험을 쌓아온 김윤정 대표변호사와 일반 형사에서부터 민사 소송뿐 아니라 부동산, 기업 자문, 인수합병 등 다양한 사건을 전담해온 그의 남편, 조중환 대표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종환 변호사는 세상에서 제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저를 가장 잘 알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법률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우리의 목표도 세웠어요. 지사를 세워서 1년에 4개월 중 한 번은 한국에서 일하고, 4개월은 일본, 또 4개월은 하와이에서 일하자고요.”

부부의 바람이 담긴 목표가 허황된 이야기는 아닌 것이, 법률사무소 화안은 일본 동경 소재의 법률사무소와 제휴를 맺고 한일 간의 법률문제, 투자, 한국법인의 일본 진출 자문 등 국제법도 담당해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법률사무소 화안은 ‘밝고 온화한 얼굴’이란 이름처럼 의뢰인들이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는 “이름뿐인 영광을 얻게 되는 건 피하자”는 김 변호사의 신념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저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도 여러 심리학 관련 서적을 탐독한 바 있고, 여름 법정 휴정기 등 여유 시간을 이용하여 색채심리와 관련한 상담자격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심리상담 선생님들을 알게 됐고, 그 인연을 법률사무소 화안으

로 이어와 업무협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루는 가사 사건에서는 의뢰인들의 상처가 더 깊어요. 그러다 보니 병원에 가서 심리상담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심리상담을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의뢰인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따뜻한 변호사로서의 역할’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김 변호사의 의지



가 엿보였다. 그러면서 좀 더 분명히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

“의뢰인들에게 처한 각각의 상황들을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삶은 흐르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데요. ‘지금 나쁜 상황에 놓여있을지라도, 결국 그 나쁜 상황이 삶의 진리다라는 걸 말하지요. 한자성어 중에도 번뇌즉보리(煩惱即菩提)라는 말이 있어요. 미망(迷妄)의 주체인 번뇌와 깨달음의 주체인 보리가 다른 것이지만, 깨친 입장에서 보면 번뇌와 보리가 하나라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뜻이죠. 저는 ‘법률사무소 화안’이란 이 공간에서, 의뢰인들에게 아픔을 용감하게 딛고 나면 새로운 세계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고 싶어요.”

법관에서 변호사로 또 한번의 ‘도약’

승소의 달콤함보다 의뢰인의 아픔을 먼저 읽을 줄 아는 김 변호사, 그가 법관 재직 시절 ‘가사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런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다.

“처음부터 가사 사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방에서 형사재판을 맡던 중 소년형사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강도치상 사건에 연루된 소년들이 모두 결혼 가정되었고, 적절한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학교나 사회에서 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 친구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어, 사회의 기초는 가정에 있다는 생각이 확고해졌고 가사 사건을 전담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취재진은 이어 김 변호사에게 법관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에 대해 물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밝히며 입양 재판 경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나라가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汚名)을 쓰는 등 여론의 반발이 심해지자 입양특례법이 제정됐습니다. 당시 제가 입양 재판을 담당할 때는 입양특례법만 시행될 즈음이라 입양기관과 양부모들의 반발이 무척 심했던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양부모 심리검사’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병적 증상이 있으면 양부모 자격을 부정적으로 보고, 가사 조사를 해서 살펴봐야 한다며 ‘절차의 중요성’을 언급했지요. 또한 저는 입양특례법이 제정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적절한 양부모인지를 심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늘이 정해주는 부모와 자식의 연을 법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진 거잖아요. ‘힘들게 얻은 것이야 말로 소중하게 대하는 것’처럼 양부모가 될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했었죠.”

이러한 신념을 가진 김 변호사는 미국 국무부 초청을 받아 해외 입양 가정을 직접 살펴보기도 하고 해외로 입양된 한국계 미국인을 직접 인터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한 경험이 입양재판을 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기에, 해외 입양 부모를 재판하는 자리에서도 김 변호사는 굳건한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양부모가 될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묻기도 했고 만일 아이가 친부모를 찾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묻기도 했어요. 한국의 문화에 대해 제대로 알고 한국에 대한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국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이가 입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이의 뿌리가 곧 정체성인데 그것을 무시한다면 아이는 성장하면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법관으로 일하면서 일반 민사, 언론사건 및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가사, 상속재산 분할, 성년후견, 유류분 반환 사건 등을 전담해왔다. 또한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입의 후견제도, 일본성년후견제도 연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상속재산 분할, 양육비 이행, 정정보도 사건과 관련한 각종 집필과 연구, TF에도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중에서도 입양특례법에 맞는 실무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김 변호사는 입양 아동학대 사건은 입양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문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으며, 입양재판 종료 후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김 변호사의 특별한 이력 중 하나는 성년후견제도가 대한민

국에 처음 도입될 당시 운영되었던 대법원 성년후견제도 관련 TF에 참여하여 관련 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연구한 것이다.

“저는 2011년도에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 경험을 계기로 알게 된 일본 변호사님들, 교수님들과 친분을 맺게 되면서 일본의 사법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때 얻었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던 당시에 대법원 성년후견 TF에 참여하여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법령과 해설서를 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과 관련한 여러 재판 업무나 성년후견업무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의 ‘변호인’으로서의 경력은 길지 않지만, 법관으로서 지금까지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지식, 균형 잡힌 시각과 사고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 그의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다.

정도를 걸어온 법조인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검사를 하다 변호사를 하셨는데 수입료도 의뢰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 무료로 변론해 주시기도 하셨죠. 그때는 변호사라는 직업, 그 사명감이 정말 멋져 보였어요.”

언제나 당당한 모습일 것만 같은 김 변호사이지만 법관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을 선택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김 변호사는 아버지를 찾았다.

“법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을 위해 법관직을 내려놓을 때, 실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아버지께서 18년 동안 법관직을 했다면 충분히 했다. 앞으로는 넓은 세상에 나가서 좀 더 세상을 경험하고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계기가 되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변호사인 아버지를 보며, 자연스럽게 법조인을 꿈꿨다는 김 변호사.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그는 스스로 법조인이 천직이라고 말하며 지금껏 지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 변호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법조인의 소양이란 무엇일까? 그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로 글을 마쳐 본다.

“무엇보다 균형 잡힌 사고와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식, 양심, 노력, 지성 등 이런 기본을 갖추는 건 중요하지만 어려운 문제죠. 너무도 당연한 가치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도 드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분명한 건 법조인의 길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또는 단순히 명성(名聲)을 위해 택한다면, 인생의 여러 시류 속에서 직업에 대한 매력을 잃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묵묵히 다하다 보면 여러 좋은 기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화안은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Profile

- 現 법률사무소 화안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중경고
- 사법연수원 수료, 32기 / 인천지방법원 예비판사(민사/형사)
- 서울고등법원 예비판사(민사/언론전담)
-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언론전담)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민사/영장/형사)
-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 전문법관 (이혼/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성년후견/소년사건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민사)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관연구위원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 가사전담/민사/유류분전담
- 법무부 상속권 상실제도 법률개정 TF
- 대법원 성년후견제도 연구 TF
- 재산조회, 재산명시 제도 등 양육비 관련 TF
- 법무부 민법 개정 TF,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 TF